

일본궁중 칠석의례의 변천과 상징성*

박 전 열**

ipark@cau.ac.kr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걸교전(乞巧奠)의 의례와 상징 |
| II. 칠석의 수용과 표현방식 | IV. 결론 |

Key word : 칠석(The Star Festival), 아악(gagaku), 궁중의례(Courtesy of the Royal Family), 걸교전(The pray of improve skill)

I. 서론

일본에서는 나라시대에 이미 칠석을 「절일(節日)」 즉 명절로 삼아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축하하는 행사를 하였다. 718년에 제정된 양노령(養老令)에는 정월 1일(元日), 7일(白馬), 16일(踏歌), 3월 3일(上巳·曲水), 5월 5일(端午), 7월 7일(七夕·相撲), 11월 수확제(大嘗祭) 등에 군신이 참여한 가운데 천황이 의례를 주재하고 연회를 베풀었다.¹⁾

중국에서 7월 7일을 칠석이라 하는 풍습과 관념이 일본에 수용되면서 궁중 의례로 자리 잡고 중요한 궁중의례 즉 국가의례로 기능하게 된다. 헤이안시대에는 일본의 풍토와 미의식이 반영된 형식과 의미로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S1A5B8035981)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1) 井上光貞 『律令』日本思想大系3 p.484 岩波書店 1976
『養老令』雜令 40 凡正月一日。七日。十六。三月三日。五月五日。七月七日。十一月大嘗の日を、皆爲節日。其普賜。臨時聽勅。

며, 차츰 궁외의 민간의 세계에서도 칠석을 수용하며 의례적인 기능과 놀이적 요소가 계승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칠석에는 중국문화 가운데도 도교적인 사상에 뿌리를 두는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밑바탕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띄우며 다른 명절과 구별되었다. 달력으로는 가을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칠석제사는 여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는 계절적 요소, 밤하늘을 보면서 진행한다라는 시간적 요소 때문에 독특한 전개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의 각종 소망과 상상력이 중층(重層)을 이루는 연중행사로 계승된다. 에도시대에는 막부가 「오절구(五節句 혹은 五節供)」라 하여 정월 7일 「칠초 절구(七草の節句)」, 3월 3일 「복숭아 절구(桃の節句)」,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양(重陽)」 등을 휴일로 지정하여 이날은 일을 쉬며 즐기도록 했다. 요즘은 말로 하면 칠석은 법정 공휴일이었고, 궁중과 무사사회는 물론 민간에서도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다시 음미하며 남녀의 만남과 이별을 아쉬워하는 한편, 각지의 솜씨 즉 기교(技巧)가 좋아지기를 구하는(乞) 즉, 소원하는 걸교전(乞巧奠)을 열었다. 걸교전은 단순히 칠석날의 밤하늘을 우러러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 소원을 상징하는 설치물과 제사상 차리기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축제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다. 중국에 연원을 두는 칠석이 궁중의 의례로써 천황과 측근의 귀족에 의하여 궁중의례로써 계승되는 한편 지금도 사람들에게 친숙한 부부신인 견우와 직녀의 역할이 「민중의 노동이나 생활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까닭」²⁾에 연중행사로 확산되며 신앙의 대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본고는 칠석의 계승과 확산과정에 등장하는 각종 의례적 상징물과 상징적 행위에 주목하여 칠석의 변천 양상을 재구성하려는데 목표를 둔다. 이 과정은 종교적 가치 즉 도교적 요소와 작은 개인의 소망이 조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小南一郎 『西王母と七夕傳承』 『東方學報』46 p.74 京都大学 1973

II. 칠석의 수용과 표현방식

고대국가가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은 백성을 강력히 통제하는 무력을 갖추는 한편 국가의 위신을 고양하고 덕치를 표방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예악(禮樂)을 정비하는데,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가 예악으로써의 궁정의례는 대륙으로부터 문물제도 수용」³⁾과 함께 일본에 전래되던 제사용 음악이나 놀이 예능이 연중행사에 편입됨으로써 궁중에서 열리는 「연중행사」는 보다 다양해졌다.

중국으로부터 공경대부 즉, 지배계급이 배워야 할 육예(六藝)는 예절(禮節), 음악(音樂), 궁술(射), 말 다루기(御), 수학(數學) 등의 기본교양을 익히는 학문 분야로 인식되었다. 이 가운데도 예절과 음악 즉 예악은 통치자 집단의 중요한 덕목으로서, 머리로 알아야 하는데 머물지 않고 몸에 익혀야 할 교양이기도 했다. 헤이안시대에 이르면 천황을 비롯한 황실의 귀족과 그 근신은 예악에 대하여 깊이 이해해야 했으며, 한시나 와카 등의 시가를 짓고 한, 두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했다. 이와 같은 예악관(禮樂觀)은 천황과 근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악을 즐기는 「어유(御遊)」⁴⁾라는 천황의 측근정치방식이자 궁중의 연희양식을 구축하기에 이르며, 나아가 칠석 등의 연중행사를 지속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1. 중국 칠석신앙의 전래

칠석에 관련된 전설은 중국에서 기원전부터 나타나며,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견우직녀와 은하수를 소재로 한 시 ‘대동(大東)’이 실려 있다.⁵⁾ 『시경』이 일본에 전래된 시기는 5~6세기경이니, 칠석 전설이 이 무렵에는

3) 村井康彦 「序章」 『日本藝能史』2 p.2 法政大學出版局 1982

4) 박전열 「일본 아악에서 「어유(御遊)」의 형성과 의미」 『외국학연구』25 pp.515-551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4

5) 이원섭 역해 『詩經』 p.282 현암사 1975

<大東의 견우 직녀 부분> 跂彼織女，終日七襄。雖則七襄，不成報章。睨彼牽牛，不以服箱。우러르니 하늘엔 은하수 굽이굽이 빛깔도 눈부시게 흐르고 있네. 또 한 권엔 직녀(織女)가 모를 이루어 종일을 일곱 자리 옮기어 앉네. 일곱 자리 가긴 해도 나를 위하여 무늬 놓은 비단을 짜주진 않고, 저기 저 번쩍이는 견우(牽牛)조차도 수레 끌어주려고는 조금도 없네.

지식인들 사이에 인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견우와 직녀에 대한 이미지가 널리 알려지며 칠석신앙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408년(永樂 8년)에 축조된 평안남도 남포시 덕흥리 고분에 은하수를 마주하고 「직녀의 곁을 소를 몰고 떠나는 견우와, 그를 전송하는 직녀」⁶⁾를 그린 견우직녀 벽화가 뚜렷이 남아 있어, 일찍부터 칠석이 중요한 세시풍속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신라에서는 별자리 견우성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였음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⁷⁾

고려사에는 1353년에 공민왕이 공주와 함께 칠석날에 궁중의 내정에서 견우·직녀성에 제사지냈다⁸⁾는 기록에서 공주가 걸교전을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는 칠석에 관리들에게 이날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설, 한식, 단오, 중앙, 팔관(八關) 등과 함께 공식휴가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절일(節日)로 여겼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조정에서 칠석에 제사를 지내거나 다례(茶禮)를 베풀었으며, 1675년에는 칠석에 궁중에서 왕자가 집사(執事)를 담당하여 다례(茶禮)를 진행하였고⁹⁾ 때로는 왕도 이 자리에 친림(親臨)하였다.¹⁰⁾ 중국에서 온 사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칠석에 의례를 행하고 선물로 환대했다는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이처럼 조선시대 궁중에서 여는 칠석의례 즉 걸교전은 왕이 직접 자녀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날에는 칠석시(七夕詩) 경연을 벌여 경사스러운 분위기

- 6) 李相俊 「고대 동아시아의 칠석문화연구」 『일어일문화연구』 65권 2호 p.291 한국일어일문화회 2008
- 7)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 시조 혁거세(赫居世) 거서간(居西干). 기원전 4년 02월에 살별이 견우성에 나타나다(五十四年 春二月 己酉 星孛于河鼓)에서 살별(孛)과 하고(河鼓) 즉 견우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 8) 『高麗史』 세가 권第38. 공민왕(恭愍王). 1358년 7월 칠석날에 왕과 공주가 내정에서 견우와 직녀를 제사지냈다(壬申七夕 王與公主 祭牽牛織女于內庭)
- 9) 『朝鮮王朝實錄』 순종(純宗). 1675년 3월 14일에 칠석(七夕)의 다례(茶禮)를 대내(大內)에서 설행(設行)하여 친림(親臨)하실 때에, 두 왕자와 복창 형제가 집사(執事)가 되고 나인이 제물(祭物)을 받들어 바쳤는데(七夕茶禮, 自內設行, 親臨之時, 兩王子, 福昌兄弟爲執事, 內人奉祭物以進)
- 10) 『朝鮮王朝實錄』 순종(純宗). 192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에 찬시 김영갑에게 흥릉의 칠석날 별다례를 감독하고 오라고 하다(賞侍金永甲詣洪陵, 七夕別茶禮監祭以來)에서 칠석제상에 차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를 고취하기도 했는데,¹¹⁾ 칠석에 궁정에서 시를 짓는 풍습은 일본에도 나타나 는 칠석의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견우직녀와 칠석에 관한 전설과 의례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¹²⁾를 통해서 나라시대(753년경)에 전래』¹³⁾되었고, 이후 일본 칠석의 의례와 세시풍속은 이를 답습 혹은 변형되며 새로운 양상과 의미를 산출해낸다. 『형초세시기』에 나타난 칠석의례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7월 7일 밤에 뜰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사상을 내놓은 다음, 술과 포와 그 시절에 나오는 과일을 진설하고 향가루를 뿌린 뒤에 견우성과 직녀성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두 별의 신이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며, 밤을 새우는 사람들은 모두 사사로운 소원을 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은하수 속에서 매우 밝은 희 기운이나 번쩍이는 오색의 빛을 보면 ‘감응한 징험’이라고 여겨, 복을 얻을 것으로 믿고 절한다.”라고 하였으니, 마당에서 복을 비는 것은 옛 풍속인 듯하다.¹⁴⁾

견우성과 직녀성은 전설상의 인물인 견우와 직녀를 상징하면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초자연물 혹은 신성한 능력을 지닌 별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칠석신앙이 다른 민간신앙과 변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칠석이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앙은 궁중의례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요소

- 11) 『朝鮮王朝實錄』 효종(孝宗). 1653년 7월 7일에 입직 관원에게 칠석시를 짓게 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칠석시(七夕詩)는 십음 배율(十韻排律)로 하(河) 자를 압운(押韻)하여 옥당(玉堂)·춘방(春坊)·한림(翰林)·주서(注書) 등의 입직(入直) 관원이 다 은대(銀臺)에 가서 지어 바치고 은대의 관원도 다 응제(應製)하라.” 하고, 대제학에게 명하여 차서를 매기게 하였다. 주서 유향(兪暲)이 으뜸을 차지하였는데, 모두에게 차등을 두어 물건을 내렸다. (上下教曰: “七夕詩十韻排律, 押河字, 玉堂, 春坊, 翰林, 注書等在直官員, 皆詣銀臺製進, 銀臺之官, 亦皆應製” 命大提學科次. 注書兪暲居首, 並賜物有差)
- 12) 『荊楚歲時記』는 중국의 양자강 중류 유역을 중심으로 한 형초(荊楚) 지방의 연중세시기로 양(梁)나라의 종량(宗懷)이 6세기경에 지은 『荊楚記』를 7세기 초 수(隋)나라의 두공섬(杜公瞻)이 증보하여 『형초세시기』라 하였다. 현존하는 중국 세시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초나라 특유의 세시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반적인 풍습도 기술되어 있다.
- 13) 守屋美都雄 『『荊楚歲時記』解說』 『荊楚歲時記』 p.276 平凡社 1981
- 14) 宗懷, 이창희 외 역 『荊楚歲時記』 『중국대세시기 I』 p.70 국립민속박물관 2006
七月七日。其夜灑掃庭中。露施幾筵。設酒脯時果。散香粉於筵上。以祀河鼓即牽牛也織女。言此二星神當會。守夜者咸懷私願。或云。見天漢中有奕奕白氣。或光輝五色。以為徵應。便拜得福。然則中庭祈願其舊俗。

가 되어, 다양한 신앙표현방식 즉 다양한 의례방식이 파생되는 동기가 된다.

중국의 도교적인 요소로 구성된 신화에 직녀는 천상세계 『옥황상제의 손녀 딸』¹⁵⁾로서 이미 신격을 지닌 존재로 숭배되고 있었다. 신격을 지닌 직녀이지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해마다 견우와 아쉬운 이별을 해야 한다는 한계 설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과 오버랩되며 실감 있게 다가오는 주제가 되었다.

이날 밤에 인가의 부녀자들이 색실을 칠공침(七孔針)에 꿰어 바느질을 하고 혹 흙이나 은 황동 등으로 바늘을 만들며 마당에 궤원을 설치하고 술과 말린 고기, 오이와 과일을 진설하고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빈다. 오이 위에 거미줄이 쳐지면 자기의 기원에 신령이 감응한 것으로 여긴다.¹⁶⁾

중국에서는 인가의 부녀자가 구멍이 7개 있는 의례용의 바늘을 만들어 소원을 빌었다. 일본에서는 제사상에 바늘은 물론 실, 비단, 악기, 식구 등 개인의 소원을 물건으로 상징하여 이를 제사상에 진설한다는 관념의 표현, 즉 즉물적(卽物的)인 표현으로 칠석의 의미를 공유하며 즐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할 수 있다.

2. 칠석의 의례적 표현방식

중국에서는 이미 육조(六朝 222-579)시대에 궁정에서는 예부터 전해지는 전설을 바탕으로 칠석연(七夕宴)이 개최되어 가무음곡과 더불어 많은 시가(詩歌)를 지어 즐기는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¹⁷⁾ 이런 전통은 일본에서도 칠석을 소재로 한 시 즉 칠석가(七夕歌)가 창작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천황은 칠석 당일에 씨름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문인들과 시연(詩宴)을 베풀고 우열에 따라 상을 내렸다¹⁸⁾는 734년의 칠석 시연 기록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칠석가는 『『가이후소(懷風藻)』나 『만요슈(万葉集)』 등에 수록

15) 小南一郎 『西王母と七夕傳承』 p.38 平凡社 1991

16) 宗懐, 이창희 외 역 『荊楚歲時記』 『중국대세시기 I』 p.70 국립민속박물관 2006
是夕。人家婦女結綵纒。穿七孔針。或以金銀鑰石為針。陳幾筵酒脯瓜果於庭中。以乞巧。有喜子網於瓜上。則以為符應

17) 久保卓哉 『陳後主の七夕詩と六朝の侍宴七夕詩』 『人間文化学部紀要』5 福山大学 2005

18) 『続日本紀』11 国史大系2 p.195 經濟雜誌社 1901

天平六年(734) 天皇觀相撲戲。是夕、徙御南苑、命文人賦七夕之詩、賜祿有差。

되어있는 데, 『만요슈』에 수록된 칠석가는 제10권의 히토마로가집(人麻呂歌集)에 38수, 작자미상가 60수, 야마노우에노 오쿠라(山上憶良) 12수, 오토모야 카모치(大伴家持) 13수 등, 총 139수가 수록되어있다. 노래의 숫자만 보더라도 만요시대에 칠석이 얼마나 폭넓게 궁중이나 귀족들의 연석(宴席)에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¹⁹⁾ 『만요슈』의 칠석가는 중국 전래의 「天上의 七夕 傳説을 일본의 記紀神話나 전통과 결합시킴으로써, 일본적인 특징을 더욱 띠게 되었다는 특징」²⁰⁾을 지니는데, 이는 칠석의 일본적 변용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궁중이나 그 주변에서 귀족들이 여는 시연은 칠석의 경우에는 아악을 반주나 독주악으로 하는 관현(管絃)이 결합된 걸교전을 열었다.

고관이자 고전학자인 이치조 가네요시(一條兼良 1402-1481)는 궁중의 연중 행사와 규범을 기록한 『공사근원(公事根源)』에서 최초의 걸교전은 755년에 열렸다고 했다.²¹⁾

이후로 걸교전에 대한 기록은 빈번히 나타나는데 806년(大同2) 칠석에 헤이제이(平城)천황이 궁정의 정원인 「신천원(神泉苑)에 행차하여 씨름을 보시고 문인에게 칠석시를 짓게 했다.²²⁾ 칠석에 궁정의례로 씨름을 집행하고 문인에게 시를 짓게 한 뒤에는 연회가 열리고 상을 베푸는 관례가 807년, 812년에도 나타난다. 칠석 낮에는 씨름을 본 뒤에 저녁에는 시를 감상하며 소원을 비는데 이는 결국 걸교전에 해당되는 행사였던 것이다.

헤이안시대 중기인 927년에 완성된 법전인 『연희식(延喜式)』에는 오절회(五節會)라 하는 5가지 절회 즉 명절을 지정하여 원단(1월1일), 백마(白馬 1월 7일), 답가(踏歌 1월14,16일), 단오(端午 5월 5일), 풍명(豊明, 新嘗祭 다음날) 등 5가지와 씨름(相撲 2월28,29일)과 중양(重陽 9월 9일)을 절회에 추가했다. 이때 칠석 행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824년 칠석이 서거한 헤이제이천황의 상중(喪中)이었기에 연회가 중지된 이래 칠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연희식』에는 대장성(大藏省)에 소속되어 궁중의 의류품을 관리하는 직부사(織部司)에서 직녀제(織女祭)를 담당한다고 법제화²³⁾하였는데, 직녀제는

19) 구정호 「칠석가의 작중주체의 변용」 『일본연구』43 pp.119-129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20) 尹永水 「萬葉集 七夕歌의 研究」 『東아시아古代學』8 p.19 東아시아古代學會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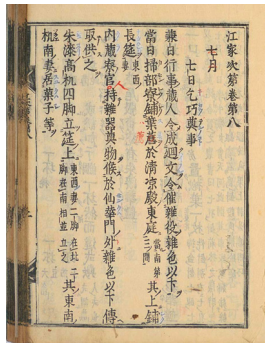
21) 一條兼良 「乞巧奠」 『公事根源』 日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1615-1624

22) 国史大系編修会 編 『日本後紀』 国史大系3 p.87, p.137 吉川弘文館 1966

내용적으로 보면 결교전에 해당되는 행사였다. 조문 가운데는 제수용품과 진설법, 담당자, 제사순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미 직녀에게 소원을 비는 궁중의 연중행사로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파악되는 부분이다.

3. 『강가차제(江家次第)』로 보는 결교전의 양식

헤이안시대 후기의 귀족이며 가인(歌人)인 오에노 마사후사(大江匡房 1041-1111)가 궁중과 귀족의 생활 규범이 되는 유직고실(有職故実)²⁴⁾에 관하여 기록한 『강가차제(江家次第)』는 『강차제(江次第)』라고도 하는데, 당시의 조정의 의식을 집대성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21권 가운데 제8권에는 칠석에 행하는 결교전에 관한 비교적 소상한 기록이 실려 있다. 서두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새벽 직전에 마치고까지 과정의 묘사를 몇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림 1> 강가차제(江家次第)의 결교전 <早稲田大学>

- 23) 「織部司」織女祭 『延喜式』 国史大系13 pp.880-881 經濟雜誌社 1910
 七月七日織女祭 五色薄繩各一尺、木綿八兩、紙廿張、米酒小麥各一斗、鹽一升、鰻堅魚脯各一斤、海藻二斤、土椀十六口、〈加レ盤〉坏十口、席二枚、食薦二枚、錢卅文、右料物請諸司辨備、造棚三基、〈二基司家料、一基臨時所料、〉祭官一人、祭郎一人、供事祭所、祭郎先以供神物、次第列棚上、祭官稱再拜、祝詞訖亦稱再拜、次稱禮畢
- 24) 유직고실(有職故実)이란 이전부터 전해지는 선례(先例)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이나 귀족사회, 무사사회의 행사나 법령, 제도, 풍속, 관습, 관직, 의식, 복장 등을 통칭하는 말이자 이에 대하여 연구하는 일을 말한다. 유식(有識)이란 과거의 선례에 관한 지식, 고실(故実)이란 공사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관한 설득력이 있는 근거와 규범이다. 이런 지식에 통달한 사람을 유식자(有識者)라 하였는데, 후대에 와서 유직(有職)이라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이날의 행사를 담당하는 구로도(蔵人 시중)가 회람문을 돌려 영을 내린다. 영에 따라서 잡역과 잡색 이하에게 개최를 명한다. 칠석 당일에 시설을 담당하는 가문료(掃部寮)가 세이로덴(清涼殿)의 동쪽 마당 <남쪽 제3문 앞에>에 명석을 깔고 <동서 처마 밑>, 기물관리를 담당하는 구라료(内藏寮) 관리가 잡기와 제물을 지참하고 센가문(仙華門) 밖에서 대기하다가 잡색보다 격이 낮은 사람이 잡기와 제물을 전해 받는다.

붉은 옷칠을 한 높은 제사상은 4개를 명석 위에 놓고<동서 처마 밑에 2개를 놓고 북쪽에 남북으로 2개를 나란히 놓는다> 동남쪽의 상의 남쪽 가장자리에 과자 등을 놓는다.

상위에는 남쪽 편에 배와 대추 한 접시, 복숭아 한 접시, 동부 한 접시, 콩 한 접시, 참외 한 접시, 가지 한 접시, 말려서 얇게 늘인 전복 한 접시, 또는 말린 대구 한 접시를 더 놓는다고도 한다. 그 북쪽 가장자리에 술 한 잔을 놓는다. 이와 함께 오와리(尾張) 청자와 붉은 옷칠을 한 화반(花盤)을 갖춘다.²⁵⁾

당시 귀족들의 업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각종 의례를 전거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격식을 유지하고 안정된 정사를 집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의례의 절차를 꼼꼼하게 기술해둠으로써 해당 방면의 권위를 인정받고 권력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겐교전은 1년만에 다시 열리기 때문에 비망록의 기능을 겸하여 서두에서는 의례의 진행을 담당할 사람의 직책을 명기하고, 장소와 제사상의 위치, 제물의 전달 동선 등을 명기하여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사상에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함께 소원을 상징하는 물건도 올린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남쪽의 서편 상에도 같은 모양으로 진설한다. 북쪽의 서편 상위 서쪽 향로에는 백화향(百和香) 4뿤음을 얹어둔다. 붉은 화반 하나를 동쪽에 두는데 신센인(神泉

25) 大江匡房『江家次第 卷八 七月乞巧奠事』, p.1230 『古事類苑データベース』国文学研究資料館 2015

七日乞巧奠事 兼日行事藏人令_レ成_二廻文_一、令_レ催_二雜役雜色以下_一、当日掃部寮鋪_二葉薦於清涼殿東庭_一、<当_二南第三門_一>其上鋪_二長筵_一、<東西妻_二内藏寮官持_二雜器奠物_一候_二於仙華門外_一、雜色以下傳取供_レ之、朱漆高机四脚立_二筵上_一、<東西妻_二脚在_レ北_一、二脚在_レ南_一、相並立_レ之、>其東南机南妻居_二菓子等_一、一坏<梨、東第一>一坏<桃>一坏<大角豆>一坏<大豆>一坏<熟瓜>一坏<茄子>一坏<薄餵>或說加_二干鯛_一一坏、然而違式歟、<式謂藏人式也>北妻居_二酒坏一口_一、以上並尾張青瓷有_二朱漆華盤_一

苑)의 연꽃 10송이 혹은 5송이를 장식한다. 개오동나무 잎사귀 하나를 올려놓는다. 잎사귀에는 오색실을 꿰 금바늘 7개, 은바늘 7개를 꿰어둔다. 바늘 구멍이 7개 있는 7공침 이야기는 형초세시기에 실려 있다고 한다. 7월 7일에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서 만나기 때문에 집집의 부인들은 채색실을 7공침에 꿰는데, 금이나 은 혹은 늦쇠로 바늘을 만들어 걸어두며 마당 가운데 참외 등 과일을 차려놓고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빈다. 이때 거미가 과일 위에 거미줄을 치면 좋은 솜씨를 얻는다고 한다.²⁶⁾

제사상의 향로나 꽃은 일반적인 제사방식이지만, 오색실을 꿰 바늘을 잎사귀에 찌른 채로 제사상에 올려둔다는 점은 칠석 의례의 특징적인 방식이다. 바늘은 보통 바느질용이 아니라, 이날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의례용 즉 비실용적인 바늘인 것이다. 궁중의 부녀자들도 『형초세시기』의 전형을 따라 좋은 바느질 솜씨를 소원하기 위하여 바늘을 제물로 바쳤다. 칠석에 더 밝아진다는 견우성에게 비는 제사이고 보면, 직조(織造)와 직물(織物)을 관장하는 직녀의 이미지가 투영된 상징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물 가운데 과일을 차려두고 그 위에 거미줄이 생기면 좋다는 관념도 『형초세시기』의 조항 가운데서 따온 것이다. 거미가 정교하게 거미줄을 짜는 솜씨와 좋은 옷감을 짜는 솜씨에 대응시킨 발상은 거미줄을 상징물로 해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동북쪽의 진설은 다른 제사상과 같으나 바늘은 놓지 않는다. 어소(御所)에서 보낸 쟁(箏) 하나를 동북쪽과 서북쪽의 상위에 걸쳐두었다. 이는 915년에 화금(和琴)²⁷⁾을 진설하던 예를 따른 것이다. 쟁에 대한 글을 보면 안족을 세우는 데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반려(半呂)와 반율(半律)이 상용되며 추조(秋調)가 있다.²⁸⁾

- 26) 西南机<同上>西北机居一香鑪一口-, <在<西、納殿百和香四兩盛<之、>居<朱彩華盤一口、>在<東、盛<神泉苑蓮十房、五房歟、>置<楸葉一枚、>插<金針七銀針七一、件針別有<二七孔、以<五色絲<縫合貫<之、裏書曰、七孔針、荊楚歲時記、七月七日牽牛織女會<天河、此則其事、家家婦結<絲纒<穿<二七孔針、或以<金銀鑰石<爲<針、設<瓜果於庭中、以乞<巧、有三蟬子羅<於瓜果上、則以爲<得<巧、>
- 27) 쟁(箏)과 화금(和琴)은 가야금과 비슷한 모양으로 현을 통겨서 소리를 내지만 각기 다른 악기이다. 쟁은 줄을 받쳐주는 안족(雁足)이 있으며 우리나라 중국에서 전래된 악기이고, 화금은 일본에서 창안한 악기라고 하며 줄을 고이는 안족이 없었다. 화금은 금(琴 고토)으로 표기하는데, 후대에 안족을 쓰게 되었고 손가락에 깎지를 끼고 연주한다. 오늘날에는 쟁과 화금을 같은 악기로 여기며 대개 고토라고 총칭한다.

진설물 가운데 쟁(箏)이 등장하는데, 쟁은 천황과 조정의 귀족들이 교양으로 연주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실제로 여러 귀족들이 즐기는 악기였다. 『형초세시기』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쟁이 등장한 까닭은 당시의 사회적 요청이었다고 생각된다. 쟁은 안족을 조정하여 음조를 정하는데, 가야금과 유사한 악기이다. 중국음악의 음조명칭인 율呂(律呂)가 정착되었던 시기에 음조까지 지정하는 세밀함을 볼 수 있다.

검정 옷칠을 한 등대 9개를 4개의 제사상 사방 귀퉁이와 중앙에 불을 밝혀둔다. 명석 위에 세워두는데 이를 구기등(九枝燈)이라 한다. 구라료도 함께 등불을 밝혀둔다. 토기 등잔을 쓴다. 중앙에 등불을 밝히는 까닭은 2가지 설이 있다. 북쪽을 향해야 한다고도 하고 어전(御前)을 향해야 한다고도 한다. 3종의 신기(神器)를 모신 나이시도코로(內侍所)에서 분(粉) 5홉을 가져오게 하여 제사상과 명석 위에 뿌리고, 천황의 의자를 틀 가운데 가져다 놓는다. 의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두 별이 만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함이다. 직급이 높은 근신들이 순서를 정하도록 명하여 별을 지켜보게 했다.²⁹⁾

4개의 제사상을 모아놓고 각 모서리에 키가 큰 9개의 등불을 밝혀두는데, 이는 일반적인 제사에서 제물을 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불을 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등불의 방향은 견우성과 직녀성을 향하여 북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전을 향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음은 절대적인 원칙을 정해두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경과된 뒤에 분(粉) 5홉을 가져다가 제사상과 주변에 뿌린다고 하는데, 무슨 가루인지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주위를 정화하고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가루를 뿌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칠석 밤에 2별이 더욱 밝아지고 실제로 가까이 접근하는 현상은 천문학으로도 증명되어 있지만, 밤하늘에 별의 움직임을 오랜 시간 관찰하려면 의자가 필요하다는 실용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다.

28) 東北机<同>上、但無<針>、>自<御所>申<下>箏一張、置<東北西北等机>上北妻、<延喜十五年例用>二和琴、>立<柱>(箏裏書云)有<三樣>、常用<二半呂半律> 秋調子也

29) 立<黑漆燈臺>九本於<件机>四方四角并中央、<加>打敷、謂<之>九枝燈、>內藏寮供<御燈明>、<用>二土器、>件中央燈明有<二兩說>、或向<北>或向<二御前>、召<二內侍所粉>五合、散<二机上及筵上>、立<二御椅子>於庭中、<或無>之>爲<覽>二星會合也<今>殿上侍臣結番、>窺<之>、藏人取<二御押鞋> 祇候、鋪<二座>於河竹臺東、爲<二雜色>以下祇候座、

혹은 관현을 연주하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였는데, 그 솜씨에 따라서 상을 하사하고, 새벽에 이르자 창문을 닫고 종료하고 철수했다. 이윽고 날이 밝자 창문을 다시 열었다. 운운. 954년 천황이 상중에 있을 때 역시 제를 지냈다. 962년 궁중에 부정(不淨)한 일이 있을 때 역시 제를 지냈다.³⁰⁾

결교전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며 소원을 빌고, 어유(御遊)에서 그런 것처럼 고관들이 관현의 연주 솜씨와 시를 짓는 솜씨를 겨루게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천황은 차등으로 상을 하사했다하니, 경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소원을 비는 축제적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집필자인 오에노 마사후사도 천황이나 선대 천황이 상중에 있는 부정(不淨)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도 집행해야 옳다고 단정적으로 명시했다. 954년 무라카미(村上)천황은 형(兄)이자 선황인 스자쿠(朱雀)천황의 3년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가, 무라카미천황의 생모가 2월에 서거하였지만 결교전을 집행했다. 962년에는 무라카미천황의 왕비 중의 한사람인 기시(徽子)여왕의 상중이라는 부정이 있었지만 결교전을 집행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규범으로 삼도록 했다.

『강가차제』의 내용은 구체적인 결교전의 진행지침이 되었고, 그 전통은 시대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지되었고, 현대의 결교전의 진행에도 참고자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교전의 의례와 상징

1. 결교전 의례용 음악의 정형

무로마치 시대 중기,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 재위 1428-1441)는 실추되었던 막부의 권위와 문화를 부흥시키려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칠석의례를 비롯한 각종 연중행사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다.

『간문어기(看聞御記)』는 후시미궁(伏見宮)의 사다후사(貞成 1372-1456)친

30) 或有二御遊御作文等事一、事了給_レ祿及二曉更一撤_レ之、事了下二格子一、<雖_レ達_レ明猶下_レ之亦上云云>諒闇時猶祭<天曆八>内裏穢時猶祭<應和二>

왕이 왕실에서 행한 각종 의례를 적은 일기로『간문일기(看聞日記)』라고도 한다. 1416년부터 1448년 사이 33년간, 귀족사회와 막부에서 일어난 일과 노교겐(能狂言), 다도, 꽃꽂이 등의 예능, 풍속 시정의 사소한 풍속 등 다채로운 내용을 실고 있어서 이 방면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궁정에서는 후시미궁을 중심으로 칠석에는 조상을 공양하는 법회를 열고 이어서 아악을 연주하며 즐겼었는데, 이를 칠석 법악(法樂)이라 한다. 「이는 개오동나무 잎사귀(梶葉) 법악이라고도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칠석제의 놀이로써 하나아와세(花合)³¹⁾와 함께 아악을 연주하는 놀이로써 헤이안시대부터 치츄 형태를 갖추어 무로마치시대에 성립되었다.»³²⁾ 개오동나무는 잎사귀가 넓고 단단하여 붓으로 씻구를 쓰기도 좋은데, 일찍부터 칠석 제사상에 바늘을 찔러서 올려놓는 작법은 확립되어 있었고, 칠석 법악의 이칭(異稱)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1416년(應永23) 7월 7일, 칠석 법악을 집행하는데 꽃을 장식할 사람들을 부르니,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꽃을 바쳤다. 행사를 할 방에 병풍을 두르고 본존을 그린 중국 족자를 걸고, 그 앞 가까운 자리에 귀상 하나를 놓고, 각종 중국제 장식품을 올렸다. 화병과 쟁반 등 수십 가지를 올려두었다.³³⁾

이는 앞서 제시한 헤이안시대의 『강가차제』에 묘사된 칠석 제사상과는 달리 꽃과 족자 혹은 중국제 장식품 등으로 진설된 모습이다. 중국과의 무역으로 중국의 장식품이 귀족사회에서 중요한 기호품으로 작용하던 당시의 풍조가 반영되어 있다. 권력의 중심이 막부로 옮겨진 시기에는 궁중귀족이 문화의 중심을 이루던 헤이안시대와는 다른 미의식이 발생하여, 새로운 경향으로 꽃꽂이, 다도, 노 등의 예능이 급격히 발전되는데, 궁중의 칠석 제사상에도

31) 花合은 사람들이 좌우로 두 편을 나누어 가지고 온 꽃의 비교해보거나, 꽃에 얽힌 외가를 부르며 우열을 다투는 놀이

32) 工藤昌伸 『いけばなの成立と發展』 p.69 同朋舎出版 1992

33) 伏見宮貞成 『看聞御記』 『古事類苑データベース歳時部』17 p.1237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館 2002

七月七日、七夕爲二御法樂-草花人々被二召集-、仍早旦人々獻レ之、座敷聊被レ屏風立廻、本尊唐繪懸レ之、其前チガキ棚一脚立レ之、種々唐物共置レ之、花瓶盆等數十瓶置レ之、

다량의 꽃꽂이가 진설되고, 악기를 올려놓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난다.

15세기의 칠석으로, 매년 칠석에 어소나 천황가문의 여러 저택에서 자시키(座敷)에 실내장식을 하고 꽃꽂이나 여러 장식품을 선보인 귀족의 이름과 칠석행사의 모습을 세세히 기록한 일기가 남아 있다. 칠석행사에는 반드시 아악의 연주가 포함되는데, 천황이 참석하는 어유는 전문 악사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나 악기연주 솜씨가 있는 귀족이 담당했다.

1435년의 예를 들면 고태나조노(後花園)천황의 부친이자 『간문어기』의 저자인 후시미노미야 사다후사(伏見宮貞成 1472-1456)천황 저택에서 진행된 칠석행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³⁴⁾

7월 2일에는 칠석에 하는 꽃 장식과 와카의 주제를 가문의 관계자들에게 연락하다. 3일에는 여관(女官)이 다회를 열다. 등롱을 만들게 했다. 4일에는 도배장이 실내의 문앞에 세우는 가리개인 쓰이타테(衝立障子)의 종이를 새로 발랐다. 6일에는 행사를 할 방에 칠석용 꽃을 준비하다. 고태나조노(後花園)천황으로부터 모자라는 준비물을 빌려왔다. 7일에는 손님을 모시는 회소(會所)에 집안의 보물인 부채그림 병풍 2개를 돌려 세우고, 문수(文殊) 인형을 그린 것을 비롯하여 23개의 족자를 걸어 두었다. 벽의 장식장에는 장식품이 놓이고, 탁자 위에는 근신들과 그 가족, 승려와 집사가 53개의 꽃병을 진열했다.

칠석을 맞이하여 궁중에는 대량의 장식용 꽃꽂이가 진열되고, 여관을 사람들을 불러 다회를 열고, 행사를 할 방과 장식품을 개수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사다후사 천황은 칠석 당일 손님을 모실 방을 그림과 병풍과 꽃으로 꾸미고 칠석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칠석을 맞았다. 이와 같이 준비한 뒤에 사다후사는 저택내에 조상을 모신 법당에서 제를 올린 뒤 본격적인 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다이코묘사(大光明寺)에 가서 향(香)을 올리고, 여러 사람이 (성명 생략) 주어진 주제에 따라 지은 와카를 소리 내어 노래한다. 와카를 지은 사람은 나와 전제상

34) 塙保己一編「看聞御記」下『続羣書類従補遺』第2下 pp.295-296 續群書類従完成會 1930 大光明寺參、燒香如例、(중략) 次和哥披講、詠人數、豫、前宰相、(중략) 講畢樂殊更法樂、盤涉調樂七、豫、有俊朗詠一首也、例年之儀不相替珍重也、

다무카이 쓰네요시(田向經良)를 비롯한 여러 근신과 가신이었다.

이어서 특별히 법악을 연주하였고, 나와 아야노코지 아리토시(綾小路有俊 1419-1495)가 중심이 되어 반섭조 7곡과 낭영(朗詠)³⁵⁾ 1수를 연주했다. 예년의 의례와 어긋남이 없이 경사스럽게 마쳤다.

후시미노미야 친왕은 아침에 먼저 조상에게 향을 피운 뒤에, 칠석 행사로 시를 지어 노래하는 과정을 감상하고 아악을 연주할 때는 직접 연주에 참여했다. 당시에 중국제 기물을 수집하고 장식하는 풍조 즉 당물취미(唐物趣味)가 반영된 방에서 전통적인 와가를 지어 부르고, 아악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중세에 새로 형성된 렌가(連歌)나 꽃꽂이, 다도도 즐기려 했다. 『간문어기』에는 이밖에도 칠석 의례에 관한 기사가 여럿 수록되어 있다. 친왕은 방을 꾸미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꽃꽂이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다. 병풍이나 족자를 천황이나 친지에게 빌리기도 하고, 향로나 꽃은 가신들에게 가지고 오도록 명하여 장엄하게 공간을 꾸몄다. 자신도 절일 즉 명절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고 시를 지어 노래하고, 아악을 연주하며 이날을 철저하게 즐겼다.

『간문어기』에 기록된 칠석의례는 천황을 비롯하여 상황이나 친왕의 어소에서 열렸는데, 이때 연주된 곡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³⁶⁾

<表1>

시기	『간문어기』 칠석의 연주곡목	참고
1417	盤涉調 7곡 : 採桑老, 萬秋樂破, 蘇合急, 秋風樂, 白柱, 輪臺青海破, 千秋樂	
1420	平調 7곡 : 慶雲樂, 萬歲樂, 甘州, 夜半樂, 五常樂急, 郎君子, 林歌	
1425	盤涉調 7곡 : 萬秋樂序, 萬秋樂破六帖, 蘇合三帖, 蘇合急, 秋風樂, 輪臺青海波, 千秋樂	
1431	盤涉調 7곡 : 萬秋樂序, 萬秋樂破, 蘇合三帖, 蘇合急, 秋風樂, 輪臺青海波, 千秋樂	

35) 朗詠은 헤이안시대 초기에 발생된 가곡(歌曲)의 하나로, 『和漢朗詠集』 등의 한시(漢詩)에 곡을 붙였다. 雅樂에 포함되며, 현재 15곡이 전승되고 있다.

36) 이 표는 「坂本麻実子 「15世紀の雅樂界⑦七夕之雅樂」, 『MLAJ News Letter』7-4 p.6 音樂図書館協議會 1985」 중에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임.

시기	『간문어기』 칠석의 연주곡목	참고
1432	기록 없음	우천으로 7월 8일로 연기
1434	기록 없음	상황의 상중(喪中) 연주 없음
1436	盤涉調 (곡명 기록 없음)	7월 5일에 연주 예행연습
1438	盤涉調 (곡명 기록 없음)	
1443	盤涉調 7곡 : 採桑老, 蘇合三帖, 蘇合急, 白柱, 輪臺青海波, 越殿樂, 千秋樂	

일본의 아악에는 곡목의 음조를 분류하여 모두 9가지로 나누는데, 칠석에 연주한 곡은 모두 반섭조(盤涉調)에 속한다. 일본 아악의 음조 분류방식은 헤이안시대에 고정되어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당악(唐樂)은 6가지, 고려악(高麗樂)은 3가지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반섭조는 가을의 분위기에 맞는 음조라고 한다.

아악가문의 악사이자 시인인 도요하라노 무네아키(豊原統秋 1450-1524)가 편찬한 『체원초(體源鈔)』에는 밤에 열리는 제사에 잘 어울리는 반섭조의 이미지를 「반섭조는 다른 곡과 비교해 말할 수가 없다. 그저 조용하고 유장하게 연주한다. 어느 곡보다도 반섭조를 천천히 연주해야 한다.」³⁷⁾고 설명했다. 이후에 반섭조가 가을 밤 칠석에 어울리는 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악사(樂士)인 아베 스에히사(安倍季尚 1622-1708)가 쓴 『악가록(樂歌錄)』에 의해 알 수 있다. 『악가록』의 반섭조는 모두 16곡인데, 이 가운데는 곡명에 추(秋)자 포함된 경우가 「승추악(承秋樂), 감추악(感秋樂), 만추악(萬秋樂), 추풍악(秋風樂), 천추악(千秋樂)」³⁸⁾ 등 5곡이다. 즉 반섭조의 곡이 가을이 시작되는 칠석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반섭조 가운데서 7곡을 선곡하여 의례에 썼던 것이라 생각된다.

37) 豊原統秋 「調子姿事」 『體源鈔』1 p.14 日本古典全集刊行會 1938

盤涉調 何にたとへつべくもなし。只しづかに延て吹べし。いづれよりも此調子をハ延テ可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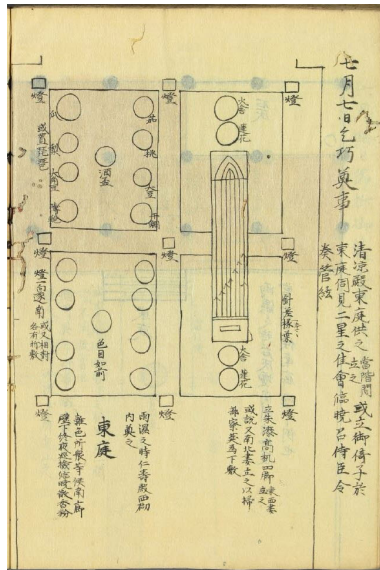
38) 安倍季尚 「本邦樂説」 『樂家録』3 pp.778-958 日本古典全集刊行會 1935

2. 의례성을 강화하는 상징적 장치와 상징물

일본 궁중의 걸교전은 왕권을 상징하는 천황, 상황, 친왕이 주재자이고 이들의 어소에서 근신들이 수행하는 일종의 공식행사였다. 걸교전의 준립근거가 되는 전설이 중국에서 전래되며 의례나 상징의 방식은 『형초세시기』를 비롯한 중국의 기록을 충실히 따른다고 하지만, 곳곳에 굴절과 변형 혹은 새로운 의례방식이 발생됨은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전래되던 당시의 걸교전의 모습을 전승하려는 노력은 앞에서 다루었던 문헌에서도 잘 나타난다.

『운도초(雲岡抄)』는 헤이안시대 후기의 의식서(儀式書)로서 서명은 운상(雲上) 즉 청량전(淸涼殿)에서의 의식 지침도(指針圖)라는 뜻이며, 의식의 배치도와 해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후지와라노 도모타카(藤原朝隆 1097-1159)가 고급 관료로서 의례에 참여한 기록이자 비망록이기도 하다.

이 제사상의 모습은 이미 일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진설물의 내용과 설명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주재자의 의도를 파악해낼 수 있다.



<그림 2> 『운도초(雲岡抄)』의 걸교전 진설<早稲田大学>

4개의 제사상 진설과 하단에 적힌 진행상의 주의사항³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청량전 동쪽 마당 위 남쪽 계단 사이에 이와 같이 진설했다. 때로는 천황의 의자를 동쪽 마당에 놓아 두 별이 상서롭게 만나는 광경을 감상했다. 새벽에 근신을 불러 관현을 연주하도록 명했다.’ 경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천황이 친히 관람하는 중요한 궁중의례 즉 어유(御遊)이며, 악기 연주에 능한 귀족을 불러 관현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음을 알 수 있다.

날씨가 궂어도 결교전은 취소되지 않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 진행하였다. ‘비가 내리거나 습할 때는 인수전 서쪽 마당 안쪽에서 한다.’ 즉 인수전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물이다. 인수전은 현존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천황이 일상생활을 하는 건물이었다.

‘잡색소 사람들은 남쪽 회랑 벽 아래 대기하며 밤새도록 순검을 하고, 새벽에는 향가루를 뿌렸다.’는 구절은 천황이 참여하는 의례에 경호와 진행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새벽에는 의례를 마치며 향가루를 뿌려 주위를 정화시키며 종료하도록 했다.

4개의 제사상은 각 모서리마다 즉 9개의 키가 큰 촛대를 배치하고 촛불을 켜 두었다.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에서부터 좌우의 순서로 1번상, 2번상, 3번상, 4번상으로 명명한다. 그림과 같이 위쪽이 북쪽이 된다.

북쪽에 있는 2개의 상 즉 1번상과 2번상 위에는 쟁(箏)을 걸쳐두었는데, 쟁에는 줄을 걸고 안족(雁足)을 받쳐두었다. 결교의 대상이 이미 부녀자의 바느질 솜씨의 향상에 머물지 않고, 귀족들의 중요한 취향인 쟁의 연주솜씨를 숙달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즉물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화상(畫像)자료가 된다.

1번상과 2번상에는 쟁과 일직선상에 향로를 놓고 향을 피우고, 연꽃병을 장식했다. 2번상에는 바늘을 찢러둔 개오동 나뭇잎을 올려놓는다. 바늘은 바

39) 藤原朝隆『雲図抄』七月七日乞巧事

(상단의 진설 부분) 燈 燈 針差楸葉 燈 / 1번상 火舍 蓮房 (그림 箏) 2번상 火舍 蓮房 / 燈 燈 燈 / 3번상 茄 桃 大豆 干鯛 酒盃 熟瓜 梨 大角豆 薄鮑 4번상 色目如前 / 燈 或置琵琶 燈 一向逐南、或又相對各有打敷、燈

(하단의 부가 설명) 清涼殿東庭供之、南階間立之、或立御椅子於東庭、伺見二星之佳會、臨曉召侍臣令奏管絃 / 立朱漆高机四脚、東西妻立之、或說又南 / 北妻立之、以掃寮部筵爲下敷 / 雨濕之時、仁壽殿西砌內奠之 / 東庭 / 雜色所衆等候南廊壁下、終夜巡檢、臨曉散香粉也

느질 솜씨가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직접적인 상징물이고, 개오동 나뭇잎은 종이가 귀하던 시대에 글씨쓰기 연습용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가느다란 바늘을 그대로 올려두면 눈에 잘 뜨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찢려두었다는 실용적인 의미도 겸하였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기록에는 바늘을 바쳤다고는 하지만, 나뭇잎에 찢려두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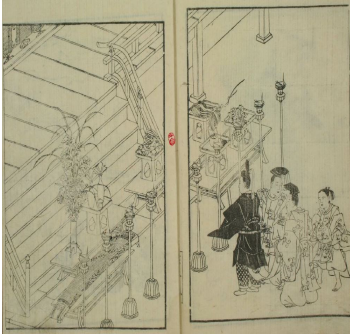
3번상에는 과일과 포 9가지를 진설했는데, ①가지 ②복숭아 ③콩 ④말린 도미 ⑤술 ⑥참외 ⑦배 ⑧동부 ⑨말린 전복 등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다. 견우와 직녀라는 신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일반적인 제사양식이 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쪽에 있는 4번상은 3번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설하는데, 이처럼 꼭 같은 제상을 2벌 차려놓는 이유는 1번과 3번은 견우를 위한 것이고, 2번과 4번은 직녀를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3번상 옆에 추가된 「후치비파(感置琵琶)」란 1번상과 2번상에 걸쳐두는 쟁 대신에 형편에 따라 비파를 올려놓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는 쟁이 없을 경우에 비파를 대용할 수 있다기 보다, 비파 연주솜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재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변개를 허락한다는 상징의 융통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운도초』에 묘사된 12세기초 궁중 절교전 제사의 진설방식은 그후에도 답습되어 기본적인 구성방식은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사를 받을 신적 존재에게 인간이 바치려는 제물이 잘 드러나도록 제사상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제물을 차리는 관행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다. 제물의 선택이나 배치방법에도 당대의 가치관과 미의식이 반영되는데, 음식이나 향과 음악은 신을 위한 귀한 것을 준비하면 되지만, 그 밖의 것은 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바늘은 인간의 바느질 솜씨 향상을 위하여, 개오동나무 잎사귀는 인간의 글솜씨 향상을 위하여, 쟁이나 비파는 연주자의 기량 향상이라는데 목표가 있다. 이와 같은 진설물은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설명하기 위한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후대에 오면 진설물의 종류가 늘어난다. 예를 들면 기타오 시계마사(北尾重政 1739-1820)가 그린 『에혼야마노가와(絵本あまの川)』에는 궁중의 진설 장면과 민간의 진설 장면이 나란히 실려 있다. 진설물의 종류가 늘어나고 놓인 자리가 바뀌어 있다. 궁중의 제사상에는 술, 오색실 타래가 등장하였다. 민간에는 소원을 쓴 쪽지를 매단 대나무, 기모노가 걸려 있고, 왼쪽 윗부분에 은하수와 별을 그려두었다.



<그림3> 『에혼아마노가와(絵本あまの川)』
궁중의 걸교전 <早稲田大学>



<그림4> 『에혼아마노가와(絵本あまの川)』
민간의 걸교전 <早稲田大学>⁴⁰⁾

이와 같은 변화는 현대의 칠석 제사상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늘날 일본 황실에서 주관하는 칠석행사는 따로 없다. 「현재는 궁중행사로써는 행하지 않는다. 본래 제의적 의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단 일반가정과 같이 황실의 자녀가 어릴 때는 색지에 여러 가지 글을 써서 달아매어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 동궁어소에서 노리노미야(紀宮)공주도 그렇게 했다.」⁴¹⁾ 현대적 제도를 지닌 군주국인 일본에 중국 전설에 뿌리를 두는 궁중 의례를 지금도 지속할 근거가 없기에 폐지되었다는 논자의 해석처럼 공식행사는 없지만, 민간의 칠석 행사 관습이 궁중의 어린이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은 헤이안시대부터 귀족이자 명문 문장가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집안에서 열리는 칠석의례에 참석하여 간접적으로 칠석의 전통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도 한다.

헤이안시대부터 현재까지 교토에서 활동해온 명문 귀족가문 레이제케(冷泉家)는 가성(歌聖)으로 추앙받는 후지와라 데이카(藤原定家)의 후손인데 대대로 조정에서 가도(歌道)에 관계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근대국가로 이행된 이후에도 레이제케는 시가의 문화전통을 계승하며, 천황과 함께 하던 귀족들의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양력 7월 7일에 맞추어 칠석

40) 石川雅望 글 北尾重政 그림 『絵本あまの川』 早稲田大学図書館蔵 1791

41) 入江相政 『宮中歳時記—伝統と新風 皇室のいま』 p.198 ティビーエス・ブリタニカ 1979

의례를 하는데, 이 자리는 천황이 참관하여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을 내외에 드러내는 의미도 지닌다고 생각된다.

2009년의 신문보도에는 「결교전 칠석의 잔치 - 교토 레이제이케의 우아함 - 감상을 위해 방문한 천황 내외」⁴²⁾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다. 레이제이케가 도쿄의 회관에서 주최한 칠석 행사에 천황 내외가 참석한 것이다. 이때 레이제이케가 설치한 제사상을 통하여 주재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진설방식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난다.



<그림 5> 레이제이케(冷泉家)의
결교전 진설



<그림 6> 오미야하치만신사(大宮八幡宮)의
결교전 진설

제사상은 이전과 같은 4개에 앞쪽에 작은 상 3개를 새로 배치하였다. 이전에는 없던 작은 상에는 왼쪽부터 오색실타래, 감아둔 오색비단, 바늘을 찢러둔 개오동나무 잎사귀가 떠 있는 물그릇, 가을꽃 억새와 국화 등을 꽂은 꽃꽂이가 놓였다. 4개의 상은 빈틈없이 붙여 놓았는데, 앞쪽에 쟁 대신 화금과 비파가 놓였다. 재물로 차린 음식 여러 가지가 놓이고, 촛대 9개가 귀퉁이마다 놓였다. 제사상 뒤쪽에 오색 비단을 늘어뜨려 두었다. 이 모습에서 『운도초』나 『간문여기』와 달리 추가된 요소가 보인다. 오늘날 일본의 신사나 단체에서 주최하는 칠석 의례의 경우에는 주최자의 다양한 소원이 반영된 진설 사례를 볼 수 있다. 신이 타는 말, 개오동나무 잎사귀를 띄운 물그릇, 악기는 쟁 이외에

42) 朝日新聞 2009年11月16日 「乞巧奠 七夕の宴~京都・冷泉家の雅の鑑賞に訪れた天皇皇后兩陛下」

비파나 생황(笙簧), 피리, 징, 공부가 잘 되도록 버루와 먹,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단 대나무, 신성성을 강조하는 종이 위패 등 사람들의 소원이 소박하게 투영된 상징물을 나열한 것이다.

칠석의 걸교전에 진설되는 제물은 음식의 경우 생리적으로 필요한 식품 즉 즉물적이고 직접적으로 존재의미를 나타내지만, 간접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제물은 일종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상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간접성 즉 의미 운송체와 메시지와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사물이 존재함」⁴³⁾이다. 상징의 단계는 논리적이라기보다 미학적인 것이며, 개인적이라기보다 문화적이며,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상상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걸교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 필수적이며, 여기에 설치물이나 제물, 음악이나, 향기, 언어와 전달되는 의미 등이 주재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일본의 걸교전은 시대적 변용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재생산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걸교전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모든 의례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납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즉 집단으로 여러 가지 상징을 만들어 공유하며, 순서에 따라 목적하는 바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재확인하는 행위를 통해 그 집단은 아이덴티티와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중국에 연원을 두는 전설이 동아시아에 공유되며, 일본은 원래의 전설 즉 원텍스트를 중요시하면서도 자신들의 자연과 풍토가 반영된 칠석의 문화를 형성해왔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칠석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옛센스라고 할 수 있는 걸교전의 수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과정에 궁중의례로써 전례화(典禮化)시키려는 왕권과 왕권을 둘러싼 귀족들이 의미를 보다 고상하게 꾸미고, 의례의 양식을 유지하려 애쓰는 방식을 여러 문헌을 통하여

43) 梶原景昭 『シンボル・シンボリズム』 p.387 『文化人類学事典』 弘文堂 1987

재구성할 수 있었다.

궁중과 그 주변에서 열리던 걸교전은 천황의 권력이 해체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궁중행사로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의 연중행사로써 혹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행사, 상업적 행사로써 한여름에 열리는 다나바타마쓰리(七夕祭)는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벤트로 자리잡고 있다. 마쓰리(祭り)에는 그 가운데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 신앙적인 행사이지만, 이벤트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통문화 가운데 칠석 의례로써 걸교전은 다양한 상징을 내포하며 중요한 문화요소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参考文献>

- 구정호(2010) 「칠석가의 작중주체의 변용」 『일본연구』 4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119-129
- 박전열(2014) 「일본 아악에서 「어유(御遊)」의 형성과 의미」 『외국학연구』 25.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pp.515-551
- 尹永水(2003) 「萬葉集 七夕歌의 研究」 『東아시아古代學』 8. 東아시아古代學會 p.19
- 李相俊(2008) 「고대 동아시아의 칠석문화연구」 『일어일문학연구』 65권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p.291
- 宗懌 이창희 외 역(2006) 『荊楚歲時記』 『중국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p.70
- 大江匡房(2015) 『江家次第』古事類苑データベース 国文学研究資料館 2015
- 梶原景昭(1987) 「シンボル・シンボリズム」 『文化人類学事典』 弘文堂 p.387
- 加藤秀幸(1981) 「武家社会近世」 『年中行事の歴史學』 弘文堂 p.247
- 工藤昌伸(1992) 『いけばなの成立と發展』 同朋舎出版 p.69
- 小南一郎(1973) 「西王母と七夕傳承」 『東方學報』 46 京都大学 p.74
- 坂本麻実子(1985) 「15世紀の雅楽界⑦七夕之雅楽」 『MLAJ News Letter』 7-4 音楽図書館協議會 p.6
- 中西進(1981) 『年中行事と芸学』 弘文堂 p.355
- 中山裕(1981) 「宮廷と公家生活」 『年中行事の歴史學』 弘文堂 p.184
- 塙保己一 編(1930) 「看聞御記」下 『続羣書類從』補遺2下』 續群書類從完成會 pp.295-296
- 村井康彦(1982) 「宮廷と寺院」 『日本芸能史』2 法政大學出版局 p.2
- 守屋美都雄(1981) 「荊楚歲時記」解説』 『荊楚歲時記』 平凡社 p.276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The change and symbolism of Star Festival in The Japanese Imperial Court

They include the Star Festival, and all courtesy is a kind of communication acts. The people gather in the time and place that was fixed to achieve a purpose and they make various symbols and share it. The community reconfirms that I explain the meaning of the matter to aim.

This increases identity and the happiness of the group. A legend of the Star Festival to establish a fountainhead in China was shared in the East Asia. Japan regarded a legend of the material as important. However, their nature and climate formed culture of the reflected Star Festival. I was going to elucidate the accommodation and a change process of the Star Festival courtesy in Japan in this report.

There were sovereignty and a noble effort to make Imperial Court courtesy in this process. They constituted a meaning of the Star Festival courtesy more nobly. I understood a method to perform labor to maintain a style of the courtesy well. The tradition of the open Star Festival was dismantled at the Imperial Court and the outskirts in modern times.

Star Festival courtesy is not opened up in the Imperial Court today. However, in the private enterprise, a Star Festival event is held as a local event, a commercial event. Star Festival opened in midsummer ties a tradition as the event that I play vigor and put in the society.